

— Sat-135 —

완전 관해된 아스피린-과민성 천식 2례

아주의대 알레르기-면역내과

이영목*, 서유진, 남동호, 박해심

배경 및 목적 : 아스피린-과민성 천식의 빈도는 성인 기관지천식 환자의 10-20%, 많게는 44%까지 보고되어 있어 약물 및 식품 첨가제에 의한 천식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 특성은 내인성 천식, 중년 여자 환자에 흔하며, 천식 증상이 심한 편이다. 기존의 보고들을 보면, 임상적으로 심한 경우도 있지만 경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천식 증상의 발병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었다. 최근 연자들은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으로 확진된 환자에서 추적 관찰하는 동안 기도과민성을 포함한 천식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고, lysine 아스피린 기관지 유발시험 결과가 음전된 환자 2례를 경험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Table. Laboratory findings of study subjects

| case | Total IgE (IU/mL) | Methacholine PC20 (mg/mL) Initial : Follow-up | L-ASA BPT response | Provocation threshold (mg/mL) | Duration for remission |
|------|-------------------|--|--------------------|-------------------------------|------------------------|
| 1 | 153 | 10 : >50 | Early | 180 | 12 months |
| 2 | 351 | 10 : >50 | Dual | 180 | 24 months |

결론 :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도 천식 치료 중 완전 소실될 수 있다.

— Sat-136 —

세팔로스포린에 의한 직업성천식

아주의대 알레르기-면역내과

서유진*, 이영목, 송영준, 최정희, 남동호, 박해심

배경 : 직업성 천식은 약물의 제조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는 많다. 그 예로는 항생제 (amoxicillin, cephalixin, ceftazidime), cimetidine, laxatives, emetics, salbutamol 등이 있는데, 2세대 cephalosporin인 cefteteram (Tomiron®)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국내 보고는 없다. 연자들은 cefteteram에 의한 직업성 기관지천식 1례를 경험하고 이 환자의 임상특징 및 병인기전을 관찰하였다.

증례 : 28세 된 여자환자로 내원 3년 전부터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항생제물 취급하였으며, 내원 2년 전부터 코막힘, 기침,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항생제 가루를 바이알에 주입하고, 혼합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공장에 들어서면 증상이 시작되고 휴일에는 증상이 완화되었다. 환자는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천식의 과거력은 없었으며 흡연력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상 총 IgE치는 274IU/ml, 말초백혈구는 6,400/mm³, 호산구치는 200/mm³이었으며, 흉부 X-선 검사는 정상이었다. 피부단자시험상 cefteteram (100µg/ml)에 대해 양성반응 (8x4/27x23mm, 히스타민 6x5/34x25mm)을 보였으며, 환자에서 노출력이 있는 소화제 및 cefazolin, cefotetan, ceftriaxone (10mg/ml), cefepime (10mg/ml)에 대한 검사는 음성이었다. 메타콜린 유발검사상 PC20=0.077mg/ml이었으며, cefteteram pivoxil (1mg/ml)로 시행한 기관지유발시험상 흡입 5분 후 FEV1이 19.8% 감소한 조기천식반응이 나타났다. 환자는 작업 전후 천식에 대한 약물치료로 호전된 상태로 추적관찰 중이다.